

# 7위 삼성, 후반기 대반전의 서막

득점·리바운드 1위 라틀리프 부상서 복귀  
장신 포워드 장민국도 전역...전력 극대화

**정관장 프로농구** KBL 2017-2018  
올스타전 일정을 마친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16일부터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올 시즌은 유독 상·하위권 팀간 성적이 뚜렷하게 구분이 됐다. 현재 추세라면 1위 원주 DB(24승9패)부터 5위 안양 KGC(20승13패)까지는 플레이오프(PO) 안정권에 들어갔다.

6위 인천 전자랜드(18승16패)와 7위 서울 삼성(14승19패) 간의 승차도 3.5게임이나 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삼성은 후반기 전력상승을 기대할만한 요인이 있다. 일단 팀의 기동 라카르도 라틀리프(29)가 부상에서 복귀한다. 올 시즌 경기당 24.58점(1위)·14.95리바운드(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치골염으로 무려 14경기를 쉬었다. 재활에만 몰두해 온 라틀리프는 12일 정상적으로 팀 훈련에 참가했고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올스타전에도 출전해 컨디션을 점검했다.

라틀리프의 가세로 삼성은 다시 안정적인 페인트존 득점, 리바운드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199cm의 장신 포워드 장민국(29)이 17일 국군체육부대(상무) 전역을 앞두고 있다. 이미 마지막 휴가 기간동안 삼성트레이닝센터(STC)에서 팀 훈련을 함께하며 완벽한 복귀준비를 해왔다. 임동섭(28·197cm), 김준일(26·200cm)의 군인대로 포워드 전역에 구멍이 났던 삼성으로서 장민국의 합류가 반갑다.

삼성 이상민(46) 감독은 "파워포워드가 부족해 김동욱을 파워포워드로 활용을 해왔는데, (장)민국이 와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상황에 따라 스몰포워드나 파워포워드로 번갈아 투입할 계획이다"며 활용 방안을 밝혔다. 장민국은 18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리는 KGC와의 원정경기부터 출전할 예정이다.

이 감독은 "라틀리프가 쉬는 기간 동안 상위권



7위 삼성과 6위 전자랜드의 승차는 3.5게임이다. 쉽지 않은 간극이다. 하지만 삼성에는 후반기 라틀리프가 돌아온다. 막판 뒤집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스포츠동아 DB

팀들과 승차가 벌어진 것이 아쉽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반기를 향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15일 열린 KEB하나은행전에서 우리은행 박혜진(왼쪽)이 상대 마크를 제치고 있다. 21점점을 올린 박혜진은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포를 터뜨리며 역전승을 이끌었다. 부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박혜진 21점 '원맨쇼'...우리은행 3연승

KEB하나 상대 12연승...단독선두 질주  
박혜진 득점·수비·외곽슛까지 만점활약



아산 우리은행의 가드 박혜진은 국내 여자프로농구 최고의 선수로 손꼽힌다. 2대2 플레이에 강점이 있고 침착한 경기 조율, 안정적인 패스, 정확한 외곽슛까지 갖췄다. 여기에 수비까지 리그 최고급이다. 워낙 장점이 많다보니 포인트가드, 슈팅가드를 가리지 않고 팀에서 원하는 역할을 해낸다. 우리은행은 15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부천 KEB하나은행에 고전 끝에 73-62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다.

박혜진(21점·4어시스트·3점슛 5개)이 왜 최고선수인지 그대대로 보여준 경기였다.

이날 우리은행은 졸전을 펼쳤다. 1쿼터 7개의 3점슛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등 야투 난조가 시달렸다. 2쿼터에도 좀처럼 야투 난조가 해결되지 않았다. 박혜진만 분전했다. 우리은행은 전반 15개의 3점슛을 시도해 단 3개만을 성공했는데, 이는 모두 박혜진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반을 25-34로 뒤졌다. 후반에도 박혜진은 팀을 홀로 이끌다시피 했다. 3쿼터에만 9점을 몰아치며 팀 공격을 주도했는데, 상대의 지역방어에는 자신의 득점 뿐 아니라 정확한 패스로 동료들의 공격 찬스까지 제공했다. 덕분에 전반에 5점에 그친 나탈리 아천와(20점·16리바운드)가 3쿼터 들어 득점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승부처에서도 여김없이 빛났다. 경기 종료 9분17초전 3점슛으로 53-54, 1점차 추격을 이끌어낸 뒤 경기 종료 7분55초전에는 김지영을 제치고 끝밀으로 돌파해 절묘한 패스로 임영희(11점)의 득점을 도왔다. 임영희는 상대 파울까지 얻은 보너스 자유투까지 성공시켰고, 우리은행은 56-54의 역전에 성공했다.

박혜진의 손으로 역전을 일궈낸 우리은행은 비로소 공격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김정은(9점), 임영희의 속공이 나왔고 리드를 다시 놓치지 않았다. 박혜진의 활약으로 역전승을 거둔 우리은행은 18승(4패)째를 수확하며 2위 KB스타즈(15승6패)와의 승차를 2.5경기로 벌렸다. 동시에 KEB하나은행전 12연승도 이어갔다.

부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불곰' 이승택, 아시안투어 시드권 확보

'불곰' 이승택(23)이 2018시즌 아시안 투어 캘리포니아 스쿨(QT)을 수석으로 통과했다.

이승택은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태국 파타야 라용그린벨리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스쿨에서 최종합계 14언더파 341타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상위 35위까지 주는 2018시즌 시드권을 가장 먼저 얻었다.

총 24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이승택은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연속해 2언더파 69타를 기록하고 타수를 줄여나갔다. 최종라운드도 4언더파 67타로 마무리 해 수석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2016년에는 장이근이 같은 아시안 투어



캘리포니아 스쿨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18일 SMBC 싱가포르 오픈(총상금 100만달러)을 통해 데뷔전을 치르는 이승택은 "첫 해외 투어 도전이라 많이 떨렸다. 현지적응 차 지난해

캘리포니아 스쿨 최종 14언더파 341타 1위 18일 싱가포르오픈서 데뷔...첫 톱10 도전

연말부터 태국으로 와서 훈련을 했다. 일찍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따라왔다.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됐다. 데뷔전이지만 긴장하지 않고 나만의 플레이를 펼치겠다. 첫째 목표는 톱10 진입"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번 캘리포니아 스쿨에선 이승택을 비롯해 주흥철(13위)과 류현우(18위), 강태영, 김민규, 이승호(이상 공동 20위), 케빈 리, 문도엽(이상 공동 29위), 홍순상, 이상민(이상 공동 34위) 등 총 10명의 국내선수가 새 시즌의 시드권을 따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새 KLPGA투어 '브루나이 레이디스' 출범

3월 17일부터 사흘간 상금 7억 규모 개최  
스포츠 한류, 이슬람권 국가 확대 기대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동남아시아 국가 브루나이에서 새 투어를 개최한다. KLPGA는 15일 브루나이에서 협약식을 열고 2018시즌 세 번째 정규대회인 '브루나이 레이디스 오픈(가칭)' 출범을 알렸다.

KLPGA와 브루나이골프협회(BDGA), 중국여자프로골프(CLPG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대회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브루나이

엠파이어 컨트리클럽에서 총상금 7억원 규모로 열린다.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 중인 KLPGA는 브루나이 레이디스 오픈을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KLPGA가 글로벌 투어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이슬람권 국가를 통해 중계되는 만큼 골프를 비롯한 스포츠 한류 산업이 이슬람권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LPGA의 해외 투어는 베트남 2개, 중국 1개, 브루나이 1개 등 총 4개로 늘어났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Cigna 라이나생명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겸보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보령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015-9900